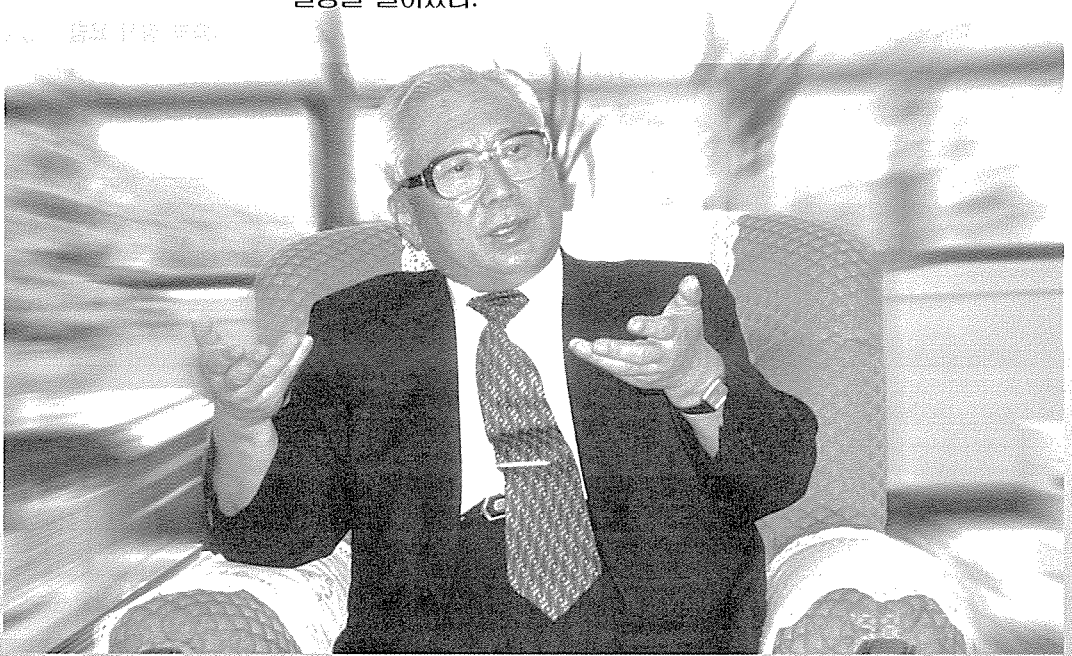




“나라가 살려면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계의 4관왕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계의 4관왕으로 통한다. 선거제를 통해 회장을 뽑는, 중앙대총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에서 중요한 4자리를 모두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의 교육에 대한 소신, 교사의 복지를 위한 의지는 누구보다도 확고부동하다. 온 가족이 운동에 조예가 깊을 정도로 건강 또한 자신하는 김총장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원 27만명을 자랑하는 교총의 김민하 회장을 만나 그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교사의 복지를 위한 열정을 들어봤다.

◀4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총은 1947년 해방직후, 식민지교육을 청산하고 주체적·민족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계 선각자들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이후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국민족교육의 발전, 교권신장, 교원복지, 교원 전문성 개발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증진, 교권옹호 및 신분피해 구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대회, 자기 연찬을 위한 연구, 국제교원단체와의 교류 등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옹호, 전문직적 자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회원은 얼마나 되고 가입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전국의 유아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재 40만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중 27만여명이 교총 회원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선생님께서는 분회장을 통하거나 시도교원단체연합회 등을 통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세한 안내를 받아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매주 30만부씩 발행되는 학교교육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고 장학회를 통해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총 2,795명의 학생에게 4억 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디에서든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체활동을 통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집단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외국에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 물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원단체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국군조직 다음으로 큰 조직이 교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 세력도 막강해서 교육부가 둘이라고 할 정도죠.

교원단체 만큼 구성원이 인격적이고 모두가 고학력인 집단은 없을 겁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불을 붙인 것도 교사들이고 그후 민주·산업·통일·과학 등 모든 분야의 인재 배출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겸손하고자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또한 교사들입니다.

▶ 최근 교사의 존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달걀이라도 선생님께 갖다드리곤 했는데, 이런 것은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나눔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고, 일부의 사례를 전체 교원이 그런 것처럼 확대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존치문제를 우리처럼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친 경우가 아닌 존치는 교육을 잘 부탁한다는 성의 표시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자정 노력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열악한 교사들의 처우를 우선 개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많습니다. 최근 교총에서는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가

졌습니다. 그때 10만명의 교사들이 동참해 현재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었습니다. 재발 전체 교원을 매도하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사의 복지나 처우의 현주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경제적 대우가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합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교감의 봉급은 큰 회사 이사가이었으나 1990년 이후는 일반 회사 대리급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예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회 풍토가 권력·돈·군권 위주로 되다보니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울바로 서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현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스승을 존경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교원들의 잡무나 강의시간을 정부 차원에서 줄여주어야 합니다.

▶ 교사들도, 본인이 건강해야 밝고 건강한 교육현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히 갖고 계시는 방침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압력·잡무·과중한 수업·언론의 매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곧바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선생들은 건강관리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방학에도 연수·



- ◎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 ◎ 정치학 박사
- ◎ 인천대학 학장 및 선인학원 관선이사
- ◎ 중앙대학교 총장
- ◎ 한국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 경제비상대책회의 위원
-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 중앙대학교 정경(政經)대학 교수(현)
- ◎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장(현)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지도위원(현)
- ◎ 국민훈장 동백장(교육부문), 국민훈장 모란장(통일, 안보부문) 외

연찬회·보충수업·잡무 등으로 실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방침이라기 보다는, 긍지를 갖고 사고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도록 노력하고 운동을 통해 체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여자 교원들은 가사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많이 건강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내에 여교사를 위한 탁아소를 만들어 운영하면 정신적 안정을 통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내 탁아소 설치는 인권에 관계되는 일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 탁아·교육·의료 분야는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개인이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라가 살려면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비율을 6%까지 올리고 우수교원 확보법을 통해 우수 교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과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안보 제일, 경

제 제일의 벽을 넘어 교육 제일주의를 표방해야 합니다. 물질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인적 자원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교육의 논리를 모르는 정치권, 경제관료는 교총에서 강력히 막을 겁니다.

▶ 회장님의 평소 건강생활은 어떻게?

- 6.25 세대인 저는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다행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체질을 물려받았기에 체질 자체는 좋지만, 성장과정에서 영양결핍도 경험했습니다. 정신력과 체력으로 버텨온 것이 오늘날 건강비결이라고 할까요.

저는 우선 항상 낙관적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항상 웃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앙대 총장시절의 일화입니다만, 총장을 맡은 5년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 데모를 해도, 노조가 일어나도 웃었더니 돈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들을 하더군요.

그러나 만나서 대화하고 수습하고 웃고 했더니 데모도 없고 노조와도 협조적인 가장 안정적인 대학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즐기기도 하고 소질도 있습니다. 맨손체조, 축

구, 테니스, 골프 등을 즐기고 식전에는 집 마당에서 2~30분간 꼭 맨손체조를 합니다. 산책이 좋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주 하지는 못하지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모두가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가족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큰 아들인 김재열 교수는 스포츠 TV 해설위원이면서 미국 신규 정식 PGA 멤버이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루이빌 대학의 골프교수일 정도로 골프에 조예가 깊습니다.

▶ 기타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IMF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인은 정쟁을 중단하고, 어려울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IMF 극복 이후 나라를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영국과 네덜란드는 교육투자 삭감을 만장일치로 반대했고 대신 다른 투자를 축소해서 전쟁 재정에 투자했습니다. 과감한 교육 개혁과 투자가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 교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